

지역예술문화 진흥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선다

군산시, 군산희망콘서트·시민이 함께하는 청소년 K-pop 축제 등 공연·행사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30일 문화예술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과 전시·행사로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진포예술제 등 다양한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예술행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청소년 K-pop 축제, 길거리 공연, 지역 위인을 기리는 상헌 이영춘 박사 학술제, 생활

문화 예술 동호회, 찾아가는 공연장작 물화 활동 등 다양성을 갖춘 문화 예술활동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선정 시 사업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자부담 등을 고려해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예술문화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길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자체 공모 추진 62회, 찾아가는 공연장작 문화활동 5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34

회, 60여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군산희망콘서트, 시민이 함께하는 청소년 K-pop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과 전시, 행사 등 일상 속에서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 홍보책자 배포

국내·외 이용 활성화 위해 소장 공예품 소개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현순)은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해 무료로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의 국내·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소장한 공예품들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해 박물관, 미술관,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홍보책자에는 전승공예품은행의 전체 소장품 5,500여점 중 현재 대여가 가능한 2,200여점의 전승공예품을 △피모공예(갓, 망건 등), △섬유공예(매듭, 자수, 누비 등), △금속

공예(조각, 장도 등), △도자·옥·석공예(옹기, 옥 등), △목칠공예(나전, 궁시 등), △지·단청·불교공예(단청, 불화 등), △악기공예(북, 가야금 등) 등 7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전승공예품은행의 전체 소장품 중 현재 3,300여 점이 국내외의 65개 기관에서 대여·활용 중이다. 전승공예품을 활용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갖춘 기관이면 무료로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를 받게 되면 포장운송료와 보험비만 부담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최

대 1년 신청 가능하며, 대여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면 횟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support.nihc.go.kr) '공예품은행/대여'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57)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많은 기관들이 이번 홍보책자를 참고해 전승공예품을 대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대여 공예품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돼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익산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체험

'익산방문의 해' 맞아 현장학습 패키지·세계시민 축제 신설

전북 최초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세계문화 프로그램 선보이며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홍보한다.

글로벌문화관은 익산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체험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세계문화해설을 기본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

는 세계 요리 체험과 악기·놀이·의상 체험이 매일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프랑스 자수와 와인, 홍차 등 특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뤄 희망하는 세계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창조아카데미도 운영한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원데이클래스와 글로벌 요리교실이 운영되며 힐링 공간인 하늘정원에서는 미니콘서트와 도시 글램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낭만포차애플리마켓을 통해 내외국인이 한데 어울려 화합하고 소통하는 세계시민 축제도 준비 중이다. 특히,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새롭게 신설된 현장학습 패키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은 물론 타지역 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글로벌문화관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global.iksan.go.kr) 및 전화(063-850-5385)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 최초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세계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홍보한다.

군산대, '제1회 황룡음악페스티벌' 눈길

독일 파트릭 오번 교수 마스터클래스·음악과 총동문 음악회 등 열려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가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만들고, 지역민에게 색다른 음악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1회 황룡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지역사회 음악인들이 모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문화, 예술, 음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26일과 27일에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일 파트릭 오번 교수 초청음악회 및 마스터클래스를 군산 풍우아트홀과 군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파트릭 오번 교수는 독일 국립 슈투트가르트 음대 교수로 슈투트가르트 음대와 브레멘 국립음대 학장을 역임했다. 파트릭 오번 교수의 피아노 테크닉과 해석은 많은 국제 콩쿨 및 세계 유명 마스터클래스에서 정평이 나 있으며, 파트릭 오번 교수는 훌륭한 제자들을 다수 양성하고 있다. 이번 초청 음악회에서 파트릭 오번 교수는 하이든의 '피아노소나타 60번 C장조', 리벨의 '하이든 이름에 의한 미뉴엣', 밥의 '가스파르' 중 '물의 요정',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 중 '사랑의 속삭임'을 연주했다. 이어 28일에는 군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군산대 음악과 총동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음악회는 군산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 중인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카스테레데의 '플룻바캉스', 지성호의 '화초장', 불품의 '에텐정원'이 연주되었다. 총동문음악회에 참여한 연주자들은 군산대학교 동문들로 현재 각 시립합창단, 도내



초중고등학교, 음악아카데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대학교 음악과는 2월 28일에는 대학 내 광장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의 후속 행사로 '지역사회 FUN FUN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관음악회에는 지역사회 대중음악 그룹사운드와 재즈 음악단체인 '언벨런스'와 '바람처럼'이 출연하여 서정적인 음악에서부터 파워풀한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는 관현악, 피아노, 성악, 작곡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 향상음악회, 신입생연주회, 졸업연주회, 교수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기획해서 학생들의 연주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립군산대학교 전국학생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으며, 콩쿠르 전체 대상과 각 부문 금상 수상자가 군산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대학 교환학생(1년) 추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음악과는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음악대학교, (사)전라북도음악분과협의회 등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국제역량 및 혁신적인 음악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부안군, 다양한 '정월대보름 전통민속행사' 열린다

2023년 계묘년 정월대보름(2월 5일)을 맞아 부안군 일원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정월대보름은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세시 명절로써 부안에서는 다양한 제사와 의례가 전해지고 용출감기, 당산제, 마당밭기,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내소사 일주문 앞에서는 내소사석포리당산보존회가 주관해 당산제와 용출감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정월대보름인 오는 2월 5일에는 부안 곳곳에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정월대보름 행사

가 치러질 예정이다. 오전 9시 30분 돌모산당산에서 돌모산당산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서외당간지주 및 서문당간지(서외3마을간지주보존회), 부안말알회 사무실(부안말알회), 좁은의 거리 불래방아 광장(전통예술원 타부), 우동리 당산공원(우동리당산보존회) 등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또 삼일석리 선돌마을 입석광장(선돌마을입석보존회)과 마포마을(마포당산문화계승위원회), 격삼마을(격삼마을당산제추진회), 지동경로당(지동경로당), 지서2마을(마을당산제보존회), 운호마을(구름호수정보화마을) 등에서도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계획돼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31일(화)~2월 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